

■ 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일까지 연장 / 영업시간 제한 강화

유흥시설 등 '오후 10시' 셔터 내린다

식당·카페는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기존대로 유지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오는 20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되며 유흥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화된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를 10일부터 시작해 오는 20일까지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된다. 학원·교습소는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 직 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과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영업제한 시간 이외 방역수칙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이벤트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은 전면 금지된다.

종교 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간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국·공립시설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운영된다. 또 도내 공공체육시설도 오는 20일까지도 운영이 제한된다.

제주도내 71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 30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인 경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며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된다.

실외공공체육시설 65개소(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1개소)는 일반인을 포함해 전체 개방되지만 이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더불어 경기 운영 시에도 관중

은 수용 인원의 1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는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른 것이다.

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신규 확진자 한자릿수로 줄었지만... 8일 오후 5시 기준 6명 코로나 확진... 누적 1157명 방역당국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지역전파 이뤄져"

제주지역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한자릿대로 떨어졌다. 도방역당국은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이미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진 이르다며 만남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8명(제주 1144·1151번), 8일 6명(1152·1157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157명으로 집계됐다.

6월 들어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두 자릿수를 나타내며 일상 속 전파를 이어갔지만, 지난 7일 처음으로 한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지난 6·7일 이틀 간 집단감염으로 인한 신규 확진자도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 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는 1.2를 넘어 여전히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 방역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표인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 비율이 20% 이상

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도 약 44%를 차지하면서 지역 내 숨어있는 감염원으로 작용할 위험이 상존해 있다.

안성배 제주도 역학조사관은 "무증상 감염자는 본인의 감염 사실을 모르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질병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수많은 2차 감염자를 낳을 수 있다"며 "불요불급한 외출 및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7·8일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도내확진자의 가족 또는 지인 8명(1144·1147·1149·1152·1155·1157), 서울 방문 이력자 1명(1151) 경기 가평군 확진자 접촉자 1명(1148), 해외 입국자 1명,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 3명(1145·1146·1156)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내 확진자 중 변이바이러스 감염자 8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53명으로 늘었으며, 추가된 8명은 모두 영국발 알파 변이바이러스로 확인됐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2회 검정고시 8월 11일 실시

올해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가 8월 11일 실시된다. 이에 따른 응시원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교육청 각종 원서 접수창구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교부 및 현장접수가 이뤄진다.

제주도교육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고시 과목은 초졸은 국·수·사·과와 선택 2과목 등 6과목, 중졸은 국·수·영·사·과와 선택과목 1과목 등 6과목이다. 고졸은 국·수·영·사·과와 한국사, 선택과목 1과목 등 7과목을 치르게 된다. 온라인접수는 14~17일 실시된다. ejoh@ihalla.com



해수욕장은 이미 한 여름 제주시 낮 최고기온이 30.5°C를 기록한 8일 협재해수욕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물놀이를 즐겼다. 이상국기자

올 봄 기온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평균기온 15.5°C 기록... 시베리아 고기압 영향

지난 봄 제주의 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021년 제주도 봄철 기후특성 분석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올해 봄철(3~5월) 평균기온은 15.5°C로 1961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았다. 평년(14°C)보다

1.5°C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까지 제주도 봄철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8년 15°C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1998년·2002년 14.9°C였다.

월별로 보면 3월 평균·평균 최고·평균 최저기온 모두 1962년 이후 가장 높았고, 4월은 기온 변동폭이 컸

으며, 5월은 일 최고기온이 30°C를 넘기도 했다.

봄철 강수량은 28.3일로 평년(29.8일)보다 적었지만, 강수량은 386.6mm로 평년(345~447.7mm)과 비슷했다.

황사일수는 총 11일(3월: 6일·4월: 1일·5월: 4일)로 1961년 이후 세 번째로 잦았고, 특히 지난 3월에는 2010년 이후 11년 만에 황사경보가 발표되기도 했다.

올해 봄 기온이 높은 이유는 제트 기류가 고위도 지역에 형성돼 북극

의 찬 공기를 가두는 역할을 하면서 시베리아 고기압의 강도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분석했다. 여기에 라니냐로 인해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게 유지된 탓도 있다.

권오웅 제주지방기상청장은 "지난 3~5월은 1961년 이후 가장 더웠던 봄철로 이상고온과 잦은 황사일수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준 계절"이라며 "향후 이상기후 원인을 진단하고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막바지 4만9000여 업체(명) 혜택... 예술인 분야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 8개 분야 중 7개 분야에 대한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4만9000여 업체(명)에 29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약 326억 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난 1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등 8개 분야·5만2000여 업체(명)를 대상으로 접수가 시작됐다.

제주도는 4월 기준 ▷소상공인 4만 3900여 업체·242억7000만원 ▷여행업·기타관광업 816업체·22억 ▷휴·폐업자 1430명·7억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658명·6억6000만원 ▷예술인 610명·4억5000만원 ▷법인택시기사 1425명·7억6000만원 ▷무형문화재 52명·3000만원 ▷사립박물관·미술관 44업체·1억원을 지급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중 6개 분야(여행업·기타 관광사업체, 휴·폐업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법인택시기사,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지난 5월 31일 신청 접수를 마감해 지원금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술인은 오는 1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신청자에 대해 정부비밀목 자금 수급여부 조화와 지원금 지급 심사·보류건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결과 등을 심사해 오는 7월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추가로 접수가 진행 중인 제주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는 오는 18일 마감해 6월말 지급 예정이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 하라!

● 일본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보관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 따라서 제주도 내 42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일동은 일본의 야만적인 행태를 반박하면서 아래와 같이 촉구 한다.

1. 일본정부는 해양환경과 인류생명을 위협하는 반인권, 반환경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검증을 수용하라!

2021년 6월 9일

MG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주시협의회 회장 김수병 외 이사장 일동 서귀포시협의회 회장 김장관 외 이사장 일동